



# 풍경은 마음을 닦아간다



**우연히 만나 새로 사귄 풍경**  
이지누 찍고 씀  
셈터 | 1만2천원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은 결코 저 홀로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혹은 사람과 사람이 어찌 어울려 있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편집자, 답사모임 안내자 등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지누씨가 최근 펴낸 <우연히 만나 새로 사귄 풍경> 머리글 중의 일부다.

이 책은 저자 이지누씨가 1994년부터 이끌어 오고 있는 답사 단체인 '우리땅 발기'를 통해 그동안 누비면서 찍었던 우리 산하의 모습과 감상의 글을 채운 기행 에세이다. 특히 이 책의 카메라 앵글은 변산의 중심인 전라북도 부안에 맞춰져 있다. 부안은 18년전 첫 방문 이래 저자가 1백번 이상을 방문한 곳이다. 그렇게 자주 갔으면 머릿속에 지도가 환히 펼쳐질 만큼 '새로 사귄 풍경'이 없을 듯 한데 저자에게는 부안 곳곳이 갈 때마다 새롭게 느껴졌다.

원인은 그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 때문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에 있었다. 마흔이 넘어 세상과의 마찰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찾아간 부안에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지막한 읍성으로 고백한다. “풍경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이의 마음을 닦아간다”고. 저자의 진솔한 고백은 계속된다. “아름답지 않은 것, 몇 번씩 방

문했을 때 내 사진의 프레임속에서 밀려나 있던 것들이 내 우울한 마음과 오히려 편안하게 만났습니다. 그걸 여과없이 그대로 찍어보고 싶었지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속에 새롭게 사귄 풍경들에 그는 흠뻑 빠져들었다. 아주 오래 사귄 예쁜 풍경들보다도 더 많이, 그래서 일까 이 책에는 화려한 컬러사진보다 화장이 없

##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답사모임 안내자인 저자 마음에 상처입고 부안 찾아가 새로 만난 풍경 이야기

는 흑백사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정갈하고 섬세한 느낌을 준다.

뿐만 아니라 열전이 있던 곳 다 쓰러져 가는 낡은 목조건물과 굳게 닫힌 녹슨 철문, 너른 갯벌에 외로이 박혀 있는 말뚝 하나, 밤새 쏟아진 억수장마를 견뎌낸 모래사장사이에 난 돌길,

내소에서 관음전지나 청련암으로 가는 숲길, 단청도 하지 않은 고졸한 멋을 지닌 개암사 대웅전 등 그가 렌즈에 잡은 장면들은 그림자와 상념에 사로잡히게 한다. 여기에 여행자를 답사하고 적어 내려간 감상 역시 미사여구부단 단조롭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돼 삶의 진실이 여과없이 전달된다.

이 책은 변산의 바다와 갯벌, 다투듯 솟아있는 봉우리들과 그 사이사이 울창한 소나무들, 마음이 쉬어가는 안락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퍼즐처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책은 크게, 변산 일대의 풍경과 조곤히 사귀는 저자의 내면 기록에 해당하는 전반부와 저자보다 앞서 부안의 풍경과 교감을 나누었던 선인들의 발자취를 반추하는 후반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저자가 방문한 내소사, 청련암, 원효봉, 불사의방, 마천대 등에서 자신보다 앞서 그 풍경들과 대화를 나눴던 티벳, 경허 스님의 지취와 말씀을 옮겨 놓아 풍경에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www.leejinu.com)를 통해 그가 답사하며 쓰고 찍은 글과 사진을 세상에 꺼내보이는 저자는 앞으로 '우연히 만나 오래 머문 풍경' '우연히 만나 오래 사귄 사람' '우연히 만나 잊지 못하는 부처' '우연히 받아 더욱 귀한 선물'을 제목으로 한 여행에세이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고졸미가 느껴지는 개암사 대웅전. 전경을 정엄한 용의 움직임이 빼어나다.

▲개암사 뒷산 울금바위 절벽에 위치한 원효봉. 가장 깊숙한 곳에 감실을 파고 부처님도 모셔놓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란 결코 저 홀로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혹은 사람과 사람이 어찌 어울려 있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 문외한씨, 춤보러 가다

제한정 지음 | 시공사 | 1만2천원

<문외한 씨, 춤 보러 가다>는 가상의 주인공인 문외한이 공연 티켓을 손에 쥐고 '볼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부터 공연을 보고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소설처럼 풀어 쓰고 있다. 동기가 어찌되었건 문외한 씨에게 두 장의 공연 티켓이 생긴다.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에는 이 고가의 티켓이 아깝다. 공짜 공연 티켓을 손에 들고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춤 공연' 하면 고위층만이 누리는 전유물로 치부하거나 이성 친구에게 문화적 소양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 두 시간 동안 지루한 발을 서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이 티켓을 받는 순간 물밀듯이 엄습해 온다. 이런 상황에 동감한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문외한 씨는 예술을 신봉하

### 낮선 현대무용 즐겨볼까

는 사람도 아니지만 음악도 미술도 이만큼의 거리감을 주지는 않았다. 그의 장식장을 채운 것은 바흐와 라흐마니노프를 비롯한 음악가들의 CD였고 시를 위한 것이었을 망정 솔하게 외웠던 미술사조에도 어느 정도는 익숙했다. 하지만 춤은 어땠을까? 그는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이호리의 요염한 춤도 좋아하지만 무대 위의 춤은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태지의 춤은 그의 취향이었으나 화태지전 국립발레단의 춤은 그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외한 씨는 척박이 두었던 티켓을 꺼내어 낱씨를 확인하며 공연장으로 간다.

이 책은 말랑말랑한 인문학적 접근도 시도했다. 춤 편하게 보기, 낯설지 않게 보기를 위해 '남자무용수는 모두 동성애자일까?' '발레상의 비밀' '야사 직전의 백설공주' 등 춤에 대한 흥미진진한 궁금증들을 수록했다. 현대 발레의 거장 모리스 베자르가 "튀튀(우산을 파놓은 형태의 발레의상)는 상류층을 위한 포노노"라고 쓰아불인 말을 인용하며 마사지족 소녀들의 구애까지 아우른다.

월간 '춤 사람들' 기자로 활동 중인 지은이(28세)는 8세부터 무용을 배웠고 서울예고·이화여대(현대무용)를 졸업했으며 대학원에서 무용이론으로 석사학위를 땀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무용에 대한 미학과 철학, 역사와 민속학까지 곁들여져 있다.

■순재현(동국대 체육학과 무용전공 교수)

<b>티벳</b>		<b>佛敎 성지순례</b>	
<p>패키지 상품</p> <p>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p> <p>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6/3.6/17.7/15 ▶ 260만원</p>		<p>단체 배낭 상품</p> <p>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p> <p>현상의 우정공로를 황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6/18.7/23.7/30 ▶ 173만원</p> <p>티벳/네팔/인도 23일 ▶ 6/20.7/4.7/29 ▶ 239만원</p>	
<p>티벳 전문 해조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p>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 4기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의 참뜻은 자기 스스로의 수행으로 마음의 속성을 바꾸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하여 참선수행의 입문부터 무어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부산법기선원 불교대학 제4기 과정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부산법기불교대학 강의 일정]**

차제	강 의 내 용
1주	입재 / 중생의 마음 (무기 / 번뇌, 가아 / 진아)
2주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친목의 시간
3주	사찰의례 (합방, 절하는 법, 예불문, 전각 / 법당) / 법담 나누기
4주	기초교리 (4성제, 8정도, 삼법인, 오온, 12처 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5주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6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 (멜로디),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7주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8주	좌선과 행선 (1시간) /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9주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 호흡점검
10주	기록불교,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1주	잘못된 불교상식 바로알기 / 설문조사
12주	회향 / 선지식 법문

★서울선원 법회일정은 02-854-1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www.sachalfood.com

## 산사의 향기로운 자연음식 전문점

### 서울시 'Hi-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 1호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약"입니다. 이 음식이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질병중 성인병은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므로 우리 인간은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 건강 사찰음식이 각광받고 대중화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음식의 특징은 어육류나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홍고(인도에서 자생하는 무릇과에 속함))를 사용하지 않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 수양의 승화된 경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사찰 음식 문화를 통해 자연 환경과의 일체감과 경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건강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실천하는 의미로 국제선식 문화원 감로당이 탄생되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선인의 인연임을 깊이 감사드리며 투철한 사명감과 보은하는 마음으로 자연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진지를 올리겠습니다.

**제 13기 자연건강사찰음식 강좌 모집**

- 모집일시 : 5월 19일 ~ 5월 25일
- 개강일시 : 2004년 5월 28일
- 기간 : 6개월 과정
- 장 소 : 감로당

※ 직장인을 위한 일요일강좌 ※

**사찰음식의 대중화 선언!**  
이여영의 새롭게 선보이는 358가지 자연 건강 사찰 음식

경북공민속박물관, 청와대, 삼청동길, 파출소, 150m, 감로당, 정독도서관, 안국동, 한국일보, 법원사

※출장 부페 예약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화동 87-1 / TEL (02)3210-3397 / FAX (02)733-9097 / e-mail : lee-mh76@hanmail.net